

데스크 시각



박진표
경제부장

지난 28일 이른 아침, 광주 도심 SK텔레콤(SKT) 대리점 앞에는 이례적으로 긴 대기 행렬이 이어졌다. 유심(USIM) 무상 교체기 시작되자 시민들이 몰려 들었지만, 상당수는 허탈한 표정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준비된 유심 수량은 수요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고 온라인 예약 시스템은 개시와 동시에 마비됐다. 거대 통신사가 위기 상황을 얼마나 안일하게 인식 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공짜폰으로 무너진 신뢰 회복 힘들어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표면적 혼란 이면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SK텔레콤은 지난 18일 유심 정보 일부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실을 인지했는데도 공식 발표까지 열흘 가까운 시간을 소요했다. 그 사이 이용자들은 아무런 경고도 받지 못한 채 개인 정보 유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다. 통신 서비스는 현대사회에서 물과 전기처럼 필수적인 기반시설이라는 점에서 이번 SK텔레콤의 능가 대응은 사회적 책무를 방기한 중대 과오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유심 정보는 단독으로는 금융 사고

은펜칼럼



박형순
전남대 명예교수, 전 네덜란드의대·카트만두대 객원교수

지난 3월, 한국강사교육진흥원의 강의에서 노지영 씨는 요즘 사람들은 전화, 카톡, 검색, 유튜브 시청, AI(인공지능) 활용 등으로 하루에 약 100회 정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미래에는 AI의 비서 역할을 더욱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필자가 삼성 갤럭시에 탑재된 '빅스비(Bixby)'를 애용한다. '하이 빅스비-'하고 불러서 날씨, 환율을 묻고 이름만 대면 전화도 걸어준다. 하루 일정에 맞춰 여러 알람을 한 번에 부탁하기도 하는데 특히 폰을 찾을 때 '1초 후에 알람'이 유용하다. 시킨 일을 확인하는 것이 신중하고 재미있어서 "고마워요"하면, "고마워하시니 제가 더 고맙네요", "별 말씀을요-", "고맙지요. 당연한 걸요" 등 너무나 상냥하고 비서 같은 응대에 미소를 금할 수 없다. "근로자의 날에 대한 자료 부탁해"라고 했더니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예요"라는 답변과 함께 올라온 다양한 정보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눈에 띄는 것

기고



고무일
한국폴리텍대학 전남캠퍼스 에너지설비자동화과 교수

광주시와 전남도는 대한민국 남부 지역을 대표하는 중추적 도시권이자, 환경·경제적 전환의 중요한 축을 맡고 있다. 2023년 광주와 전남의 폐기물 발생량은 각각 234만 톤, 1743만 톤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지역의 경제활동 증가와 도시화의 직접적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광주는 생활폐기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전남은 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역별 폐기물 특성은 향후 폐기물 처리 정책 수립에 있어 맞춤형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2030년부터 전면 시행될 '가연성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은 광주·전남 지역에 중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기존처럼 단순 매립에 의존할 수 없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으며 재활용이 어려운 가연성 폐기물의 적정 처리는 지역사회 전체의 환경보전과 탄소중립 실현과 직결된다. 광주는 하루 평균 약 1300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이 중 상당량이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혼합쓰레기로, 플라스틱 등 재활용이 어려운 가연성 폐기

신뢰는 복구되지 않는다...SKT 사태의 대가

를 직접 유발하지 않지만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될 경우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름 등이 함께 유출될 경우 계좌 탈취나 신용사기 등으로 급속히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SK텔레콤의 대응은 한심하다 못해 어이가 없을 정도다. 사건 초기부터 "실질적인 피해는 없다"는 메시지만 맹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보다 기업의 이미지 관리에만 신경 쓰는 모습이다. 이번 사태는 SK텔레콤이 고객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전국 2600여개 대리점에서 무상 교체를 진행했지만 준비된 유심 수량은 전체 교체 대상자의 5%에도 못 미쳤다. 광주지역 대리점들도 초도 물량이 소진되면서 시민들은 긴 대기 끝에 허탈한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SK텔레콤은 자사 가입자 2300만명과 알뜰폰 이용자 187만명을 포함해 약 2500만명이 유심칩 교체 대상임을 알고 있었지만 초도 준비 물량은 고작 100만개 뿐이었다. 뒤늦게 5월 말까지 500만개를 추가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긴 했지만 이미지도 초기 혼란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SK텔레콤은 고객 이탈 등으로 사태가 확산하자 파격적인 판매 전략까지 동원하고 있다. 갤럭시 S25 모델을 번호이동 고객에게 5만원대에 제공하거나, '공짜폰'을 내세우는 방식이다. 그러나 소비자가 바라는 것은 최신 기기 공짜폰이 아니다.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확신이다. 정보 유출 사태가 SK텔레

주 4일 근무제?

이 5월 1일은 흔히 말하는 '빨간 날', 즉 법정공휴일은 아니고 가산임금이 적용되는 법정휴일로서 노동 가치를 되새기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며 연대와 단결된 힘, 사기 진작, 권익과 복지 향상, 근로의욕 고취 등을 위한 날이라는 것, 미국과 캐나다는 9월 첫째 주 월요일을 'Labor Day'로, 일본은 11월 23일, 유럽·중국·러시아에서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Worker's Day)로 기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58년 이래 3월 10일에 노동단체들이 자체적으로 노동절 행사를 하던 것을 1963년에 5월 1일을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로 법제화하였다. 세계 각국에서 자체적으로 근로자의 날을 정하였지만 많은 나라에서 5월 1일을 택한 것은 1884년 5월 1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방직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한 것, 1889년에 파리에서도 5월 1일에 세계 노동자들의 권리 쟁취를 위하여 대대적인 동맹파업을 한 것 등에서 연유한 것 같다. 하루의 노동을 8시간으로 줄인 것 외에 세월이 흐르면서 주중 근무일 수도 줄었는데 네덜란드에서는 1996년 근무시간 형태에 따른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였으며 주 4일 또는 3일도 선택할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 발생 후 미국의 일부 주,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재택근무, 탄력근무 또는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 6일이 5일로 바뀐 것은 2005년인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작년 7월부

광주·전남 폐기물 처리의 새로운 길

물이 주류를 이룬다. 전남 지역 역시 사업장 및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어려운 비율이 상당히 높다. 광주·전남 모두 가연성 폐기물의 체계적 처리 없이는 2030년 탄소중립 정책에 부합할 수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소각시설 확충은 폐기물 문제 해결에 있어 필수적인 수단이다. 현대식 소각시설은 폐기물 부피를 약 90%까지 줄이고 고형 잔재물만을 소량 매립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활용해 지역 난방, 발전, 산업용 에너지로 전환함으로써 에너지 자립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광주시는 현재 신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설은 하루 650톤 처리 규모로 광역권 차원의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이다. 전남 역시 시군 단위에서 소각시설 신설과 기존 시설 현대화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편의성과 연계한 복합단지 개발을 통해 소각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소각시설 확충을 둘러싼 시민들의 우려도 여전히 존재한다. 건강 피해에 대한 불안, 부동산 가치 하락 우려, 환경오염 가능성 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과거 일부 노후 소각시설에서 발생한 악취와 미세먼지 문제는 주민들의 부정적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소각시설 신설 사업에도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소비자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최근 콜센터 운영업체 KS한국고용정보, 대형 법정보호대리점(GA) 등에서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다크웹에서는 이 데이터가 2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기술적 오류라며 본질 외면 안돼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기업이 함께 해킹에 대비한 보안 예산 지원과 전문 인력 파견, 정기적 점검 체계 등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특히 기업들은 기술적 조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투명한 정보 공개, 신속한 사고 통지, 실질적 피해자 구제라는 세 축을 기반으로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 또한 이번 사태를 단순한 기술적 오류로 축소해 문제의 본질을 외면해서도 안된다. 기술은 빠르게 복구할 수 있지만 무너진 신뢰는 수십 년이 지나도 쉽사리 복원되지 않기 때문이다. SK텔레콤 역시 이번에 상실한 것이 단순한 가입자 수가 아니라 브랜드를 지탱해온 '신뢰' 그 자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SK텔레콤이 해야 할 일도 명확하다. 피해자 앞에 투명하게 서고 실질적 구제와 신뢰 회복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SK텔레콤이 이번에 잃게 될 것은 단지 고객 수가 아니라 통신 시장에서의 존재 이유 그 자체가 될 게 분명하다. 경제와 신뢰의 관계에 대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케네스 에로는 "신뢰는 모든 경제활동의 윤활유다. 신뢰가 없으면 교환과 계약은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터 4.5일 근무제를 도입하였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주 40시간을 지키면서 '13시의 금요일', 즉 금요일 오후 1시에 한 주간의 업무를 마친다. 올해는 여러 지자체에서 낮은 출산율 극복을 위해 임신, 자녀양육이 필요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 4일 근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수년 동안 노사 간 주 4일 근무제는 의의 있어왔는데 의료계 최초로 2023년 시행한 세브란스병원의 시범사업이 끼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임금 10%를 삭감하고 30명의 간호사가 참여했는데 직업 만족도가 상승하고 이직, 사직 의향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 결과들을 얻었다. 십여 년 전, 필자가 네발의 한 의과대학에서 객원교수로 근무할 때 외래환자 진료를 위해 대학 전체가 수요일도 휴무였다. 월, 화 일하고 하루 쉬고 목, 금 일하고 이를 쉬는 주 4일 근무는 무척 여유롭고 여가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서 그 달콤했던 삶을 기억한다. 그러나 주 4일 근무제를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다. 고용주는 인건비 상승을, 근로자는 여가가 주어지는 대신 줄어드는 수입을 걱정할 것이다. 어쩔 수 없이 투잡, 쓰리잡을 뛰며 더 바쁘고 고단하게 살지도 모른다. 거의 무한 정보 탐색이 가능하고 수준 높은 모방, 창작 능력까지 갖춘 AI와 로봇 등에게 일자리를 내주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직종이 얼마나 남을 것인가도 문제이다. 미래에는 많은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하릴없이 백수로 전락할까 걱정스럽다.

社說

'유심사태' SKT, 국민 불안 해소에 명운 걸라

SK텔레콤(SKT)의 유심(USIM) 정보 유출 해킹 사태가 좀처럼 해소될 기미 보이지 않고 있다. 해킹 원인 파악은 지지부진하고 재고물량 부족에 따른 유심 교체 지연으로 가입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SKT는 어제 긴급하게 보도자료를 내고 유심 재고 부족과 로밍 이용 고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개발 역량을 총동원해 유심 소프트웨어 변경(유심 포맷) 방식을 개발중이라고 밝혔다. 이 달 100만개에 이어 다음달까지 500만개의 유심을 추가로 교체하겠다고 밝혔지만 2500만명의 가입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유심 교체가 늦어지면서 가입자들의 불안과 불편이 커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지금까지 SKT가 보인 대처가 더 큰 논란을 낳고 있다. SKT는 해킹 사실을 알고서도 만 하루가 지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고 가입자 안내는 사흘만에, 유심 무상

교체 발표는 열흘만에 이뤄졌다. 빠른 안내로 고객 피해를 예방하기보다는 회사 이미지 관리에 더 신경을 썼다나 불신을 자초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정부는 아직까지 휴대전화 불법 복제 가능성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유심 교체 완전히 이뤄지기 전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유심은 개인 식별과 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다. 정부 설 명대로 복제폰을 이용해 은행이나 증권 앱에 접속해 금전을 탈취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더라도 유심 정보를 복제해 금융 인증을 가로채거나 계정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어 언제든지 다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SKT는 국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회사의 명운을 걸고 사고 원인을 밝혀내 보안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도 사고 초래와 신고 지연에 대한 SKT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차체에 해킹에 대비한 정보보호체계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여수 묘도 LNG 허브 터미널 본 궤도 올랐다

여수 묘도에 추진하는 LNG 허브 터미널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민간 자본의 합자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에 이어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약정으로 사업비까지 확보했기 때문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 사업의 SPC인 '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은 그제 여수 묘도 LNG 허브 터미널 개발사업을 위해 1조 1000억원 규모의 PF대출 약정을 체결했다. 약정에는 신한은행을 비롯해 지역협력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10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 사업은 여수 묘도 일대 27만여㎡의 간척지에 1조 4362억원을 투자해 LNG 저장탱크 3기와 10만 t 급 전용 항만, 수송 배관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6월 정부의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인데다 처음으로 사업비의 60%를 차지하는 PF대출 약정서까지 체결해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여기에 전남도와 여수시, BS한양, GS에너지 등 민관이 출자한 자본금에 정부 기금이 더해져 이미 사업비 100%를 마련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행정 지원을 넘어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끄는 사업이다. 2029년 터미널이 상업운영에 들어가면 20년간 여수산단을 비롯해 여수광양만권에 연간 300만 t의 산업용·발전용 LNG를 공급하게 된다. 가격도 기존보다 10%가량 저렴하게 공급할 것으로 예상돼 산업단지 활성화는 물론 고용 유발 효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묘도 허브 터미널에서 공급되는 LNG는 수소의 원료 역할까지 하게 돼 장기적으로는 이 일대가 정정수 생산 및 공급을 담당하는 수소 클러스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정정 에너지 수도'를 표방하고 있는 전남이 태양광·풍력에 이어 수소까지 갖춰 진정한 에너지 메카로 발돋움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無等鼓 (No-eung-gu) 이팝나무 (Eopnammu) 해심었던 나무가 이제는 다른 의미가 되어 우리 곁에서 있는 것이다. 반면 빛(인기)을 잃어가는 나무도 있다. 동요에 등장할 만큼 가로수로 흔했던 포플러(미루나무)는 이제 찾아보기조차 어렵다. 열매의 고약한 냄새 때문에 천덕꾸러기가 된 은행나무도 거리에서 퇴출중이다. 이팝나무의 하얀 꽃에서 가로수의 수종변화는 물론 세상이 흥망성쇠까지 읽을 수 있다. 남부 특정 지역에서만 볼 수 있었던 이 /김대성 전남 서부·중부·전북 취재부장

Table with 2 columns: English and Korean text. Includes publication info for Kwangju Ilbo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contact details, and subscription information.